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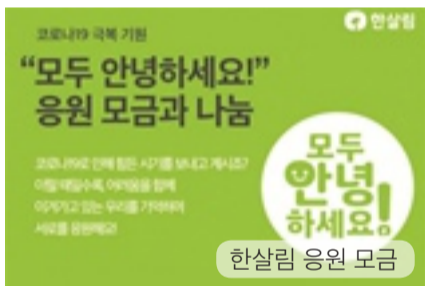
한살림농부이야기

2020년  4월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소식지 26호

발행인 이백연 편집인 곽현용
편집부 한혁준 김진주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480-2, 3층
문의 043.716.0508
홈페이지 farm.hansalim.or.kr
이메일 farm@hansalim.or.kr
페이스북 facebook.com/hansalimfarmers



괴산연합회 물품후원



한살림 응원 모금



가림다마을영농조합법인 물품후원



경남연합회 진산공동체 물품후원



토리식품 물품후원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 모금과 나눔

코로나19바이러스의 창궐로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마을 간, 사람들 간의 교류가 끊기며, 국경간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 글로벌한 시대의 경제 공급망은 흔들리고 최악의 경제위기라고 하는 어두운 터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가 고조되는 순간에도 도움이 필요한 지역과 사람들을 살피며 봉사하고 지원하는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살림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민과 마을, 의료진에게 응원 모금과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살림 장보기에서는 '코로나19 극복'에 2,000원 기부, 한살림펀딩에서 '코로나19 극복' 피해지원모금을 실시하고 있다.

한살림생산자 조직도 지역별로 다양한 나눔 행사를 펼치고 있다. 한살림괴산연합회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자가격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연면 주민들에게 친환경 먹거리로 구성된 지원물품을 괴산군청을 통해 전달하였으며, 가림다마을영농조합은 홍삼액을 대구시에 전달하였고, 제주도연합회는 한라봉을 제주대학병원의료진에게 후원 물품을 전달하였으며, (주)토리식품은 사랑의 물품(호박죽 30상자, 팔죽 30상자)을 상주시에 전달하였고, 경남연합회는 진산공동체가 연근차, 전통간장, 식혜, 딸기잼 등을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및 푸드뱅크를 통해 기부하였다. 물품외에도 생산자연합회는 지역조직별로 한살림펀딩, 한살림재단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나 혼자만 살고자 국경을 닫고, 폐쇄조치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문제의 해결도 전 지구적으로, 지역적으로 협력해서 해결해야 한다. 그야말로 사회적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한살림이 펼치고자 하는 공동체 운동이고, 지역살림운동이다.

2019 전국 한살림생산자 실태와 의식에 관한 조사 결과보고서

작년에 한살림생산자연합회와 모심과살림연구소는 생산자 회원의 생산 실태와 현황, 생산자들의 문제의식과 현안에 관한 의견을 파악하여 한살림생산자들의 권익을 지키고 생명농업과 한살림운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2019 전국 한살림생산자 실태와 의식에 관한 조사 - 농축산부문>을 2019년 3월 20일부터 같은 해 7월 5일까지 진행하였는데, 2019년 3월 기준 전체 생산자 회원 2,127명 중 실제 조사 가능한 조사대상자는 1,992명이었고, 그중 1,411명이 참여하였다(응답률 70.8%). 결과보고서 중에서 생산조직에 의미 있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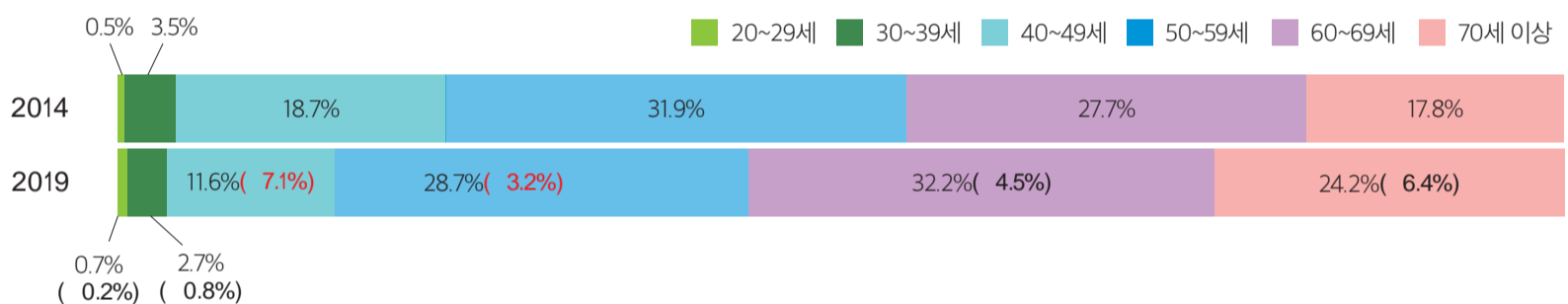
▶ 한살림 생산자 평균 연령은 2014년 59.4세 에서 2019년 61.3세로 1.92세 증가

2014년에 이어 5년 만에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도 한살림 생산자 세대의 전반적 고령화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농산·축산 부문 생산자 회원 평균 연령은 61.3세로 2014년 59.4세보다 1.92세 늘었다. 2008년 생산자 실태조사 때 57세와 비교하면 고령화의 속도는 조금 더 빨라졌다.

2014년과 비교해 한살림 생산자 회원은 40대는 7.1%, 50대는 3.2%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4.5%, 70세 이상은 6.4% 증가했다. 국내

평균 농가경영주 평균 연령(2015년 기준)과 비교하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국내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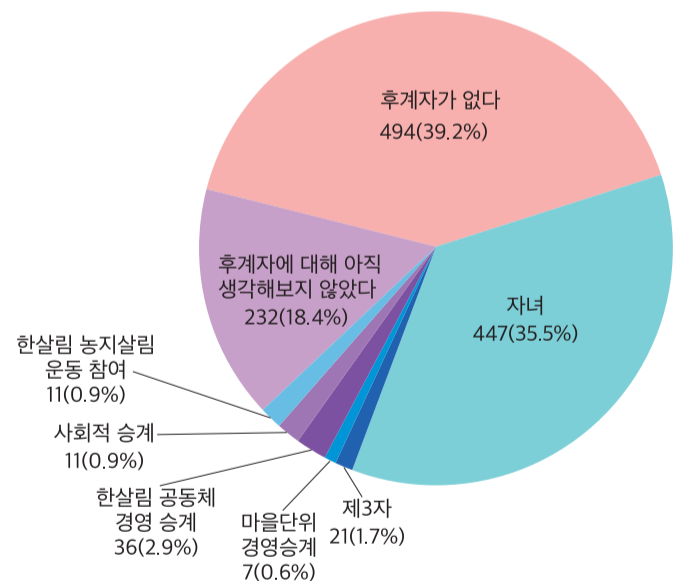
전체 생산자 회원들의 연령대를 보면, 30~49세 회원이 14.3%, 50~69세 회원이 전체 회원의 60.9%, 70세 이상이 24.2%이다. 65세 이상은 38.0%이다. 이는 일반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 44.7%(2018년)에 비하면 낮지만 이제 한살림 생산자들도 고령화 대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결론이다.



▶ 60세 이상 생산자 40%는 농업경영 후계자가 없다.

한살림 생산자들 가운데 현재 농업경영 승계 대상이 없다는 응답이 39.2%였다. 65세 이상 고령 생산자의 경우, 후계자가 없다는 응답은 40%를 넘었다. 생산자들은 '자녀에게 승계하겠다'(35.5%)로 응답했지만, 자녀가 한살림 생산자 회원인 경우는 6.9%에 불과했다. 은퇴 후 농지 처리계획이 아직 없다는 생산자 비율도 1.6%이다.

이런 고령화 추세라면 4년 후 한살림 생산자 평균 연령은 65세에 근접하고, 승계 대상이 없는 한살림 농지는 유실되거나, 관행농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살림 생산부문의 실질적 위기를 의미한다.



· 농업경영 승계 대상(응답 1,259명, 무응답 133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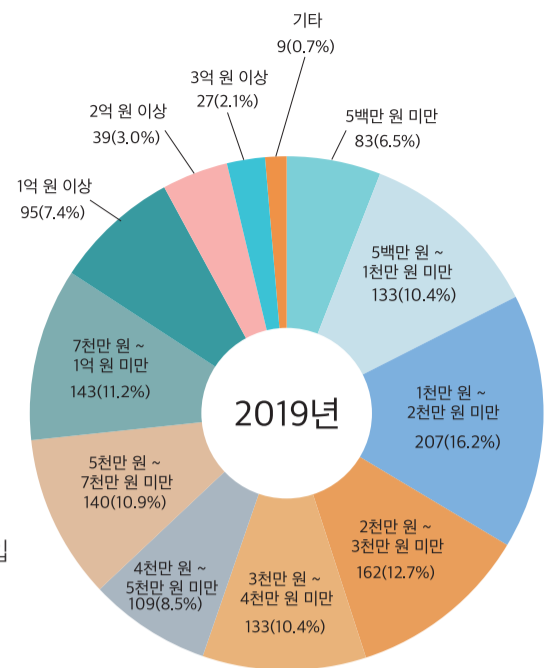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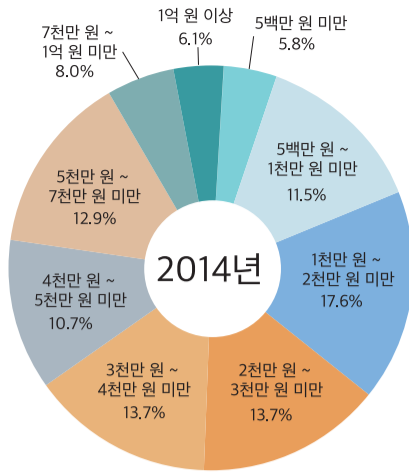
▶ 최근 3년간 농산물 판매수입 현황

한살림 생산자 내부의 양극화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연간 농산물 판매 총수입액 7천만 원 미만 생산자는 2014년에 비해 큰 변동이 없는 반면, 7천만 이상 구간은 2014년 14.1%에서 2019년 24.4%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경지면적이 늘어나는 등 영농의 규모화가 진행된 데 기인했을 수도 있다.

각 구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평균을 산출하면, 농축산 부문

한살림생산자 회원 농가당 평균 총수입은 57,061,369원(생산비 등을 반영하기 전 총수입액)으로 나타났다. 5년 전 2014년 조사에서 확인한 농업조수익 4천 60만 원보다 약 29%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순소득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5년 전 조사에는 없었던 '2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구간이 보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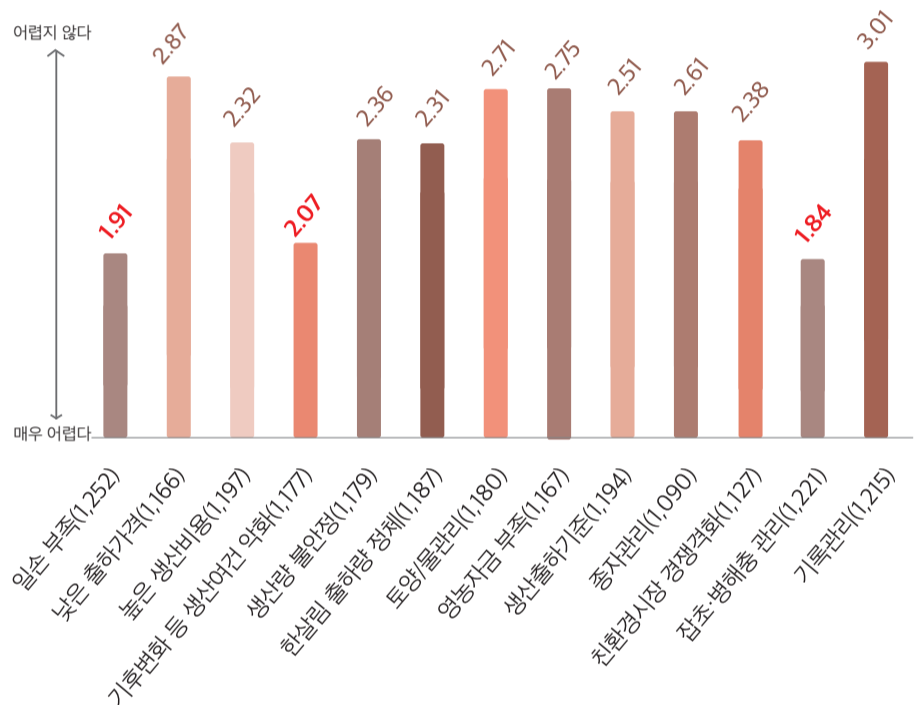
10년 미만의 가입경력 생산자들 가운데 1억 이상의 고액 농업관련 부채를 지고 있는 생산자 비율은 10년 이상 경력 생산자들의 같은 비율보다 높았다. 농업관련 부채의 원인으로서는 '농기계 구입 및 임대료' 비중이 컸다. 요컨대 시설 투자, 농기계 임대 등 농업경영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 한살림 생산자 내부에 전통적 소농기반(가족농 57.2%)과 시설화, 규모화한 중농 이상(41.7%)의 농업경영 모델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최근 3년 연평균 농산물 전체 판매수입 (응답 1,280명, 무응답 112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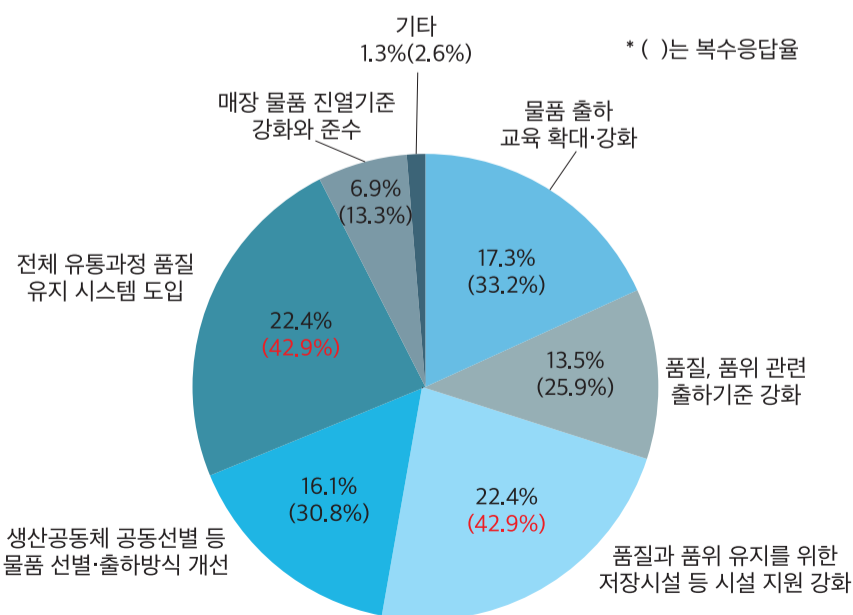
▶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서 겪는 어려움

한살림 농사의 가장 큰 어려움 3가지는 '잡초·병해충 관리'(1.84), '일손 부족'(1.91)과 같은 친환경 농업 생산 자체의 어려움과 '기후변화 등 생산여건 악화'(2.07)로 나타났다. 친환경 유기농업의 어려움이 그대로 묻어났다. 특히 주목할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여건의 악화는 2014년 조사에서 6위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3위로 올라서 한살림 생산자들이 겪는 기후변화의 위기감이 최근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 생산자들은 현재 손을 놓고 있다. 절반 가까이(47.6%)가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대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아직 대응 필요성을 못 느낌'은 11.6%에 그쳤다. 즉 대다수는 기후변화를 실감하고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현실적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생산자연합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품종 변화, 물품정책 마련, 산지 재배치 등 생산자들의 목소리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

* '매우 어렵다'를 1점, '어렵지 않다'를 5점으로 환산해 평균값을 도출함
 * '매우 어렵다' 1점, '어렵지 않다' 5점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계산했다. 평균값이 낮을수록 응답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이다.
 * '기록관리'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평균값인 3점 이하로 나타나, 한살림 생산자들이 생산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 품질·품위 개선을 위한 우선 과제 (복수응답 총 2,32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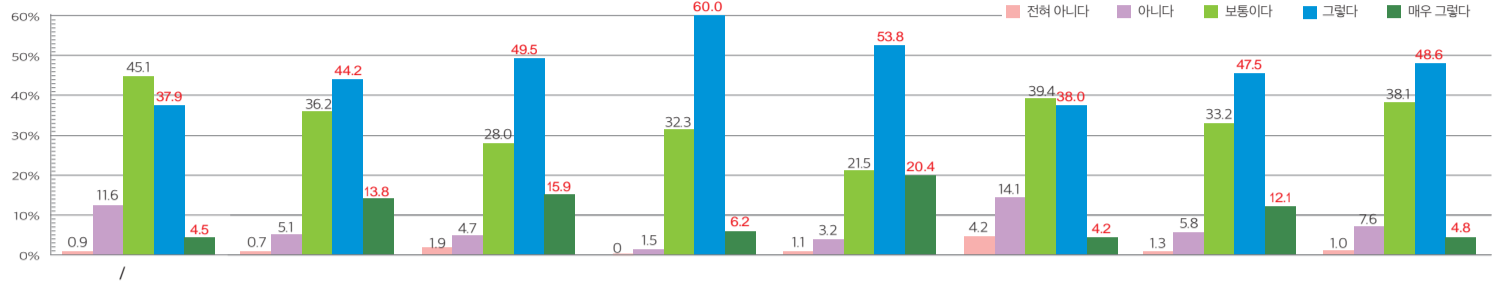
▶ 물품 품질·품위 개선 과제

생산자들은 소비자 조합원들의 요구인 물품의 품질 품위 개선을 위해서 '저장시설 등 시설 지원 강화'(42.9%)와 '전체 유통과정 품질 유지 시스템(콜드체인 등) 도입을 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 광역단위별 회원들 간 약정 물량 배정 공정성

광역단위별 회원들 간의 약정 물량 배정이 공평한지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약정물량 배정이 공평하다는 응답에는 전북권역이 가장 높았다(74.2%). 다음으로 전남권역이 공평하다고 응답했다(6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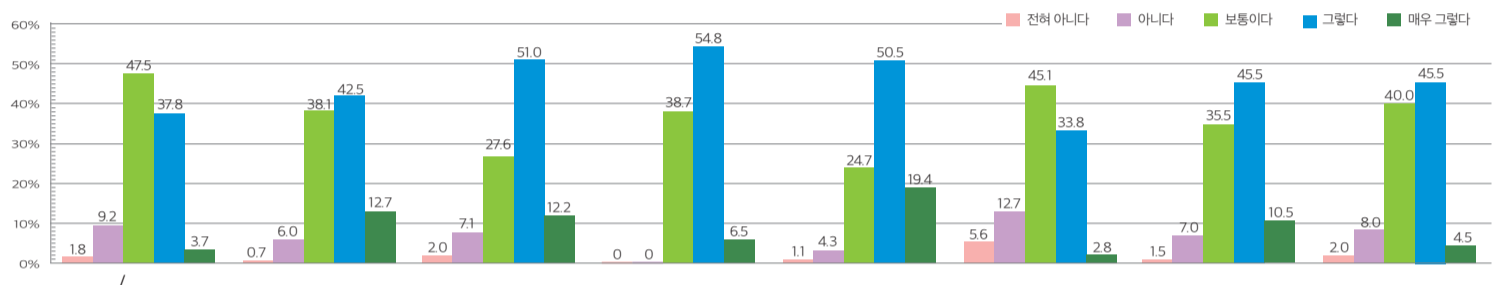
반면, 제주권역(42.2%)과 강원·경기권역(42.4%) 생산자들이 약정 물량 배정이 공평하다는 응답비율이 낮았다.



·회원들 간 약정 물량 배정의 공정성에 대한 생각 - 광역별(응답 1,131명, 무응답 261명 제외)

▶ 광역단위별 회원들 간 품목 배정 공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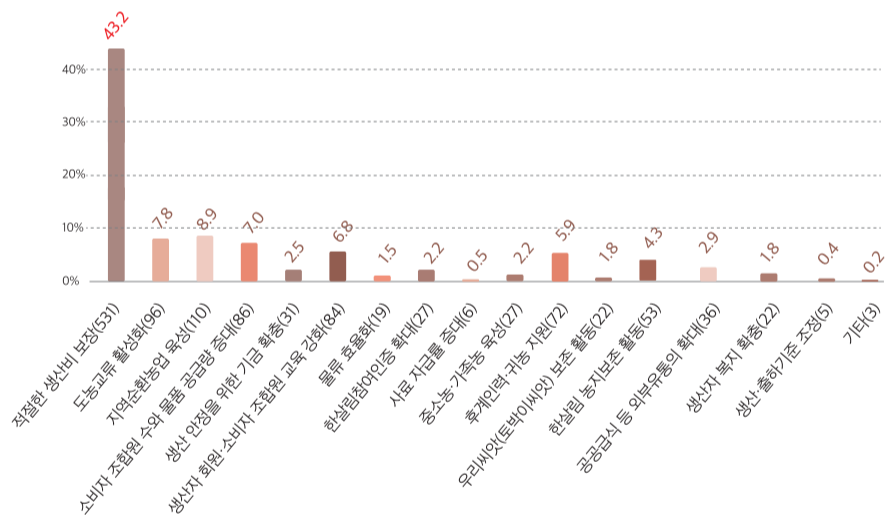
광역단위별 품목배정 공정성에 대한 응답결과도 약정물량 배정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회원들 간 품목 배정의 공정성에 대한 생각 - 광역별(응답 1,075명, 무응답 317명 제외)

▶ 한살림 농업살림 실천을 위한 중요과제

한살림 생산자들은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에 대해 여전히 불안한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희망적인 응답도 조금씩 늘고 있다. 반면 한살림의 생산자운동, 농업살림운동의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응답이 다수였고, 부정적인 전망은 줄어들었다. 한살림 농업살림운동에 대한 생산자들의 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생산자들은 한살림 농업살림을 위해 '적절한 생산비 보장', '도농교류 활성화', '소비자 조합원 수와 물품 공급량 증대', '생산자 회원·소비자 조합원 교육 강화', '공공급식 등 외부유통의 확대'를 향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한살림 농업살림을 위해 중요한 과제 1순위 (응답 1,230명, 무응답 162명 제외)

정책제안

2020년 한살림생산자연합회는 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2019 전국 한살림 생산자 실태와 의식에 관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살림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1. 공정한 생산 배정과 약정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으로써 균형 있는 소득 규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 한살림생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년 세대, 귀농인들 가운데 한살림 생산자를 적극 발굴, 육성해야 한다. 청년, 귀농인들을 위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내 '한살림 농업학교'를 개설할 수 있다. 또 한살림 실무자들 가운데 생산자로 진입, 귀농할 인재들을 안내하고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3. 한살림생산자의 농업 관련 부채가 일반 농가의 부채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부채 실태를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농업 관련 부채의 주된 원인이 '농기계 구입 및 임대료'와 '농업 경영비'항목이므로 생산자연합회에서 '공동구입, 공동이용', '비료, 연료, 종자 구입비'를 절약할 수 있는 협동 방법을 찾아 생산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4. 기후변화에 대한 생산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생산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 대책은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생산자연합회는 품종 변화, 물품정책 마련, 산지 재배치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출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살림 농업살림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공공급식 시장과 로컬푸드 진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생산자연합회, 한살림사업연합 등과 공동으로 통일적인 출하기준과 브랜드 관리, 조직적인 논의와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설 전담기구의 구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6. 생산공동체 월례회의는 생산자조직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약정 물량과 품목 배정뿐만 아니라 정보와 교육, 소식과 홍보 전달이 이루어지는 소통의 공간이다. 권역/지역 연합회와 생산자연합회는 공동체 월례회의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모색하고, 월례회의의 결과가 권역/지역연합회, 생산자연합회로 되먹임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7. 한살림운동과 농업살림의 미래에 대해 생산자들은 대체로 희망적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적절한 생산비 보장', '도농교류 활성화', '소비자 조합원 수와 물품 공급량 증대', '생산자 회원·소비자 조합원 교육 강화', '공공급식 등 외부유통의 확대' 등을 향후 주요한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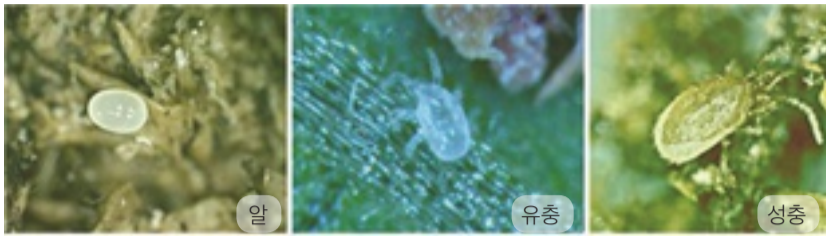
가

1월 15일 생산기술연구회 주관으로 김진원 기술사를 초빙하여 '뿌리리응애' 자가 제조방법을 실습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천적은 작물에서 활동하지만 뿌리리응애(마일즈응애)는 토양에서 활동합니다. 특히 총채벌레가 번데기가 되어 토양으로 떨어지면 뿌리리응애의 먹이가 되어, 총채벌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은뿌리파리 성충이 뿌리 근처에 알을 낳으면, 알이 유충이 되어 작물의 뿌리를 가해하지만, 뿌리리응애는 작은뿌리파리를 잡아먹습니다. 이렇듯 뿌리리응애는 토양에서 발생하는 해충들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즉 토양 내에서 활동하는 천적 총채벌레 번데기, 버섯파리, 작은뿌리파리애벌레, 앞굴파리번데기, 뿌리 선충, 톱독이류, 닭 진드기 등의 해충을 뿌리리응애 천적으로 방제할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만들어 널리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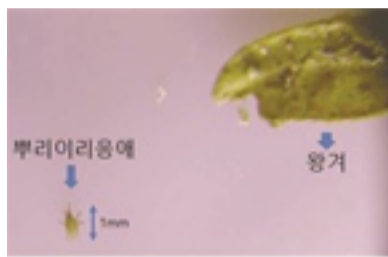
* 문의 : 생산자연합회 생산지원부 주영달 차장 043-716-0508



뿌리리응애의 생태



• 뿌리리응애는 마일즈응애라고도 부르며 알은 0.3mm 내외로 흰색의 타원형이며, 유충은 0.4mm 내외로 다리가 3쌍입니다. 약충은 0.7mm 내외이고 성충은 1mm 내외로 몸 색은 황색이며 등껍질은 갈색 방패 모양으로 뾰족한 형태임.



15배율로 본 뿌리리응애

- 뿌리리응애는 알->유충->전약충->후약충->성충의 생활사를 거치며, 다습하고 햇빛이 들지 않는 환경을 좋아하여 토양의 지표면에 서식하고, 작물의 위에는 올라가지 않음.
- 긴털가루응애를 먹이로 주었을 경우 발육 기간은 20°C에서 알 3.6일, 유충 1.4일, 전약충 7.5일, 후약충 4.5일로 전체 발육기간은 17일며, 수명은 15~20일임. 뿌리리응애의 성충은 작은뿌리파리일 경우 하루에 5~6마리를 포식함.

뿌리리응애 자가 제조 방법

1) 준비 자재(10a 방제용)

- * 왕겨 속에는 곰팡이균과 각종 벌레가 있어서 소독이 필요하다
- ① 소량일 때
 - 내열 봉투에 왕겨 6리터에 물 400cc 넣음
 - 고온, 고압으로 10분간 찜
- ② 대량일 때
 - PP포대에 적당량 왕겨 담기 · 물속에 24시간 침지
 - 24시간 그늘진 곳에서 수분 제거 · 고추건조기 이용 70°C로 24시간 찜

- ① 소독된 왕겨 : 6리터(700g 정도) _ 먹이인 긴털가루응애, 천적인 뿌리리응애의 서식처
- ② 쌀겨 : 500g _ 긴털가루응애의 먹이임
- ③ 사육 용기 : 4리터 4개, 10리터 4개
- ④ 뿌리리응애 : 팜 119에서 구입 가능

※ 팜 119에서는 5리터 완제품(긴털가루응애를 거의 소비하고 뿌리리응애 활동이 왕성한 제품)을 십만 원 정도에 택배로 발송한다고 함. 이것을 가지고 200평 정도 방제를 할 수 있음. 자가로 만들 생산지는 위 왕겨와 쌀겨를 준비하고, 위 제품에 먹이인 긴털가루응애를 추가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함. 필요시 사무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사무처 주영달 010-3242-3118)

※ 뿌리리응애의 먹이인 긴털가루응애(T. putrescentiae)가 혹시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을 수 있음. 하지만 긴털가루응애는 오이긴털가루응애(T. neiswanderi)와 다르게 곡물을 주식으로 하고 있어, 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함.

2) 뿌리리응애 사육 방법

- 상자 습도 40%, 온도가 27°C 정도면 10일 정도 지난 후 뿌리리응애가 2배 정도 증식함
- 증식은 4주 간격으로 증식된 천적을 분가할 수 있음
 - 1) 4리터 용기에 1.5리터 왕겨 채움
 - 2) 구입 또는 증식된 뿌리리응애 500cc 넣음
 - 3) 그 위에 쌀겨 500g 덮어 줌
 - 4) 10리터 용기에 물을 2~3cm 채움
 - 5) 4리터 용기를 10리터 용기에 넣어 응애 탈출 방지
 - 6) 4리터 용기 뚜껑 90% 덮고 10리터 뚜껑 덮어 습도 유지
- 유튜브에 "뿌리리응애"를 검색하면, 자가사육 매뉴얼이 나와 있음. 이는 대량 번식을 하고 있는 방식임. 여기에는 왕겨를 냉동으로 소독을 하고 있음



1) 소독된 왕겨를 바닥에 깬다



2) 뿌리리응애 접종



3) 쌀겨덮음



5) 큰통에 물을 담아 이중상자로 응애 탈출방지함

* ()

· 아산생산자연합회는 19년 7월~11월까지 김진원 기술사를 초빙하여 시설하우스 생산 자들과 총 10회의 천적 강의를 듣고, 적극적으로 천적농업을 하고 있음.

· 아산생산자연합회 사무국에서는 총채가시응애, 뿌리리응애를 직접 만들어 필요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음.



아산생산자연합회.자가제조시설

- ① 오이 시설 하우스 구석에 50cm 주름관을 묻어서 키우고 있음
- ② 주 1회 한번 정도 섞어주고 필요한 시기에 접종을 하고 있음



시설하우스내 주름관 형태로 만듬(취가들어갈 수 있어서, 비닐을 덮거나, 덮개로 덮어야 함)

뿌리리응애 사용 방법

- 뿌리리응애는 작물 정식 전에 접종을 해서, 뿌리의 해충들을 잡아야 한다.
- 접종 방식은 300ml 종이컵 아래쪽을 구멍을 내어서 안쪽에 증식된 뿌리리응애를 넣고 뒤집어서 땅에 박으면 된다.(뿌리리응애는 땅 속으로 들어가려는 성향 때문임)
- 3~5m에 작물 주간 사이에 종이컵을 접종하면 된다.



종이컵 형태 모습

※ 참고자료- 김진원 기술사 _ 천적활용기술

가 () 가
 가 , . ,
 (.) , .

1. 가
 , , . , 가 가
 , 가 , 가
 가 (.)
 , ,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2.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5. 가
 가 가

3. 2
 가 가
 가 가
 가 가
 6. 가
 가 가

4.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울진 반딧불이공동체 필지점검



충주공동체 필지점검

충청남도
자조관리 워크리스트

주요, 책임담당자

| 구분 | 내 용 | 담당 자 |
|------|------------------------|------------------------|
| 총괄 |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 |
| 참여조직 |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 |
| 주요내용 |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
| 담당자명 |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
| 주요내용 |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
| 담당자명 |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
| 주요내용 |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
| 담당자명 |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
| 주요내용 |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
| 담당자명 |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

!

기후 위기와 코로나바이러스를 이기는 '행동감염'



3 14 “ ” 가 (WHO)가 (pandemic) 50% 1 5 20 ~170 70% 5 8 8

가 (/), (rhetoric)

(Kenneth Rogoff) “ (recession) 가 90% 가 1~2 -13.5% .1976 가 -20.5% 4 가 가 2 -5% 1 0% 2008 가 가 (Forbes) GDP(2 7) (dramatic collapse)가

(Center for Health and the Global Environment) 가 가 가 APEC 12% 2021 가 가

가 ?

가 2 25%

1 0.6 가 5 가 2015 < > 2100 가 3 가 IPCC() 2018 '1.5 가 1.5 , 2030 2052 .2019 5 가 ()

(lifestyle) 25% 가 2.5% 가



1.5 2030 가 2050 3 가 0.5m 35%, 55%가 가

(Personal), (Abrupt), (Now) 가 “ (behavioral contagion)” 가

(Daniel Gilbert) 가 (Personal), (Abrupt), (Immoral), (Now) 가 'PAIN'

.2 ,70 가 가

